

전라북도 국제화 역량 강화방안

이동기_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윤규_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신지원_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본 정책브리핑은

'전라북도 국제화 역량강화 방안 연구'중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1. 연구배경

지방정부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국제화에 대한 중요성 부각

지방정부의 국제화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행정영역 확대 및 지역주민의 수요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세계 각국과 경쟁적으로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어, 국제화의 규모 및 수준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국제화가 지역발전 및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김미연, 2010: 61).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문화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 및 상품, 문화 등이 해외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국제화는 국제교류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신종호 외, 2010: 3), 문화예술교류 등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 하고 있다(홍종필·여선하, 2012: 335).

전라북도의 대도약을 위한 도정 국제화 역량 강화 필요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도 간의 국제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전라북도의 특성에 적합한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여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라북도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 국가는 4개국 10개 지역으로 타 시도의 평균 14개국 22개 지역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국제화 역량 기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민선 7기 도정 목표인 전라북도 대도약의 정책 기조에 부응한 도정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 방향과 추진과제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2. 현황분석

자매·우호 및 국제교류 현황

전라북도의 자매결연·우호도시는 4개국 10개 도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매결연은 워싱턴주, 뉴저지주, 중국 강소성 등이다. 우호협력 국가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이며, 일본의 경우 가고시마현, 이시카와현, 중국의 경우 상해, 산둥성, 운남성 등 3개지역이며 베트남의 경우 닥락성, 까마우성 등이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실적은 3년간('16~'18년) 총 185회의 활동이 있었으며, 전북방문의 경우 110회, 국가방문은 76회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2018년 기준 국제교류 실적은 총 61회, 2017년 국제교류실적은 58회이며, 2016년의 국제교류 실적은 66회 나타났다. 2018년 국가별 실적을 보면 중국 16회(전북 방문 7회, 중국방문 9회), 일본 15회(전북 10회, 일본 5회), 동남아 16회(전북방문 10회, 동남아방문 6회), 기타 14회(전북방문 11회, 기타권방문 3회) 등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국제교류 현황은 4개국 10개 지역으로 타 시·도에 비하여 미흡한 수준이다. 전국 시도의 국제교류는 총 263개국 436개 해외도시이며, 평균 국제교류의 경우 15.47개국 25.65개 해외도시 지역이다. 국제교류가 활발한 지역은 서울 지역으로 43개국 62개 지역이며 부산의 경우 23개국 31개 지역, 경기의 경우 24개국 37개 지역, 대전 19개국 25개 지역 등이다. 전라북도도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16개국 28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라북도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에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세계지방정부연합, 국제회의컨벤션협회(ICCA), 아시아태평양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이다.

국제교류 활성화 및 국제화 함양을 위해 인적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적교류는 전라북도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정책으로 미국 워싱턴 주, 일본 이시카와현, 중국 장쑤성 등과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 주와의 인적교류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총 19명이 파견되어 인적교류를 하였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년 기간 동안 인적교류가 이루어졌다. 워싱턴주와의 인적교류는 2008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5년부터 인적교류가 이루어졌다. 일본 이시카와현과의 인적교류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루어지다가 중단되었다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시카와현과의 인적교류는 현재까지 총 7명이 파견되었다. 중국 장쑤성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총 10명이 파견되었고 중국 장쑤성과의 인적교류는 1994년의 체결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실적>

(단위: 건)

국가	중국			일본			동남아			기타(영어권등)			
	'18	'17	'16	'18	'17	'16	'18	'17	'16	'18	'17	'16	
계	16	13	18	15	18	18	16	4	17	14	23	13	185
전북방문	7	7	8	10	11	11	10	2	12	11	15	6	110
국가방문	9	6	10	5	7	8	6	2	5	3	8	7	76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19)

공공외교 정책 추진 현황

전라북도는 한스타일을 중심으로 공공외교사업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재외공간 한스타일 공간 연출사업, 자매결연도시 한스타일 전시관 운영, 해외문화원 전복의 날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재외공간 한스타일 공간 연출사업은 매년 재외공간 5~6개소 정도를 한지 소재벽지, 조명등, 가구, 소품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연출하는 사업으로 외교부와 협의하여 수요조사 등을 거쳐 공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자매우호도시 한스타일 전시관 운영은 전라북도와 자매우호 지역에 한스타일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매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식·한복·전통놀이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한스타일 테마 부스를 운영하였다. 해외문화원 전복의 날 운영 사업은 전라북도 유·무형 문화유산인 한지, 한식, 출판, 소리 등과 현지 문화자원을 연계, 접목하여 한국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한국 문화의 확산 및 홍보에 주력하였다.

<전라북도 공공외교 정책>

연도별	구분	재외공간 한스타일 연출		한스타일 전시관		전복의 날 운영
2018	추진대상	대사관, 영사관 공모		자매우호지역대상		해외 한국문화원 공모
		1차	2차	1차	2차	
	대상국가 (기관/장소)	말레이시아 체코	태국 캐나다	일본 (이시카와 현립음악당)	중국 (장쑤성) 공예미술 전시관	아랍에미레이트 (한국문화원) 아부다비국립극장, 자이드대학교)
	주요내용	한스타일 공간연출	한스타일 공간연출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2017	대상국가 (기관/장소)	가나, 콜롬비아, 폴란드, 제네바, 중국	시드니, 사우디아라비아, 샌프란시스코	일본 (가고시마) 시민문화홀	중국 (윈난성) 켄벤션센터	멕시코 (한국문화원)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주요내용	한스타일 공간연출	한스타일 공간연출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2016	대상국가 (기관/장소)	시애틀, 몽골, 프랑스	모로코, 싱가포르	미국 (워싱턴주) 피어스칼리지, 헬스에듀케이션센터		베트남 (한국문화원) 하노이베소문화공전
	주요내용	한스타일 공간연출	한스타일 공간연출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2015	대상국가 (기관/장소)	오만	광저우	중국 (장쑤성) 난징도서관		인도 (한국문화원) select citywaki광장
	주요내용	한스타일 공간연출	한스타일 공간연출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9)

3. 전라북도 국제화 추진과제

글로벌 대도약을 위한 국제화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확대

전라북도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국제화는 전라북도의 역점시책, 지역발전, 경제발전,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의 전라북도 글로벌 브랜드를 정립하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 및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외연적 영역을 확장하여야 한다. 전라북도의 정책 및 자원 특성 등을 반영하여 문화·예술, 산업,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매·우호 교류 협력분야의 지속화 및 다양화, 실리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매 및 우호 지역과의 협력 분야의 지속화 등을 통해 상호 신뢰 관계 형성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동과 우호 국가 및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 지속화를 위해 자매결연·우호 협약 등에 대한 체결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가 산발적, 개별적,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방식에서 실질적, 전략적 관계로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국위별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추진 방향 모색해야 한다. 선진국 및 인접국, 신흥국, 후진국 등의 국가별 상황 및 국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추진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선진국(유럽 및 미국 등)의 경우 선진 행정 및 산업, 시민의식 등 벤치마킹 등을 통한 사례 확산, 인접국(일본, 중국 등)의 경우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문화예술이나 경제 및 인적교류를 추진, 신흥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등)은 개발협력사업, 도내 기업진출, 투자대상검토 등 경제외교 및 문화적 교류 등을 추진, 후진국(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개발지원사업,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원외교 및 기업협력진출, 대학연계 사업 등을 추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4개국, 10개지역을 13개국, 20개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단계별 목표 전략을 설정해야 보면, 1단계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영국, 러시아, 아르메니아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2단계는 베트남, 몽골, 중국, 독일,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호주, 마다가스카르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3단계는 미얀마, 인도, 프랑스,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브라질,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교류협력 등을 추진한다.

<단계별 신규 자매우호 지역 확대안>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중점 교류활동 (협약·MOU체결목표)	6지역 (4지역)	8지역 (3지역)	8지역 (4지역)
아시아	인도네시아(서부수마트라주) 베트남(호치민시) 라오스(루앙프라방주)	베트남(까마우성) 몽골(셀렝게아이막) 중국(스촨성)	미얀마(네파도) 인도(마하라슈트라주)
유럽	영국 (노스웨스트잉글랜드주)	독일 (바이에른주)	프랑스 (오토노르망디주) 네덜란드 (헬데를란트주)
CIS	러시아(연해주) 아르메니아(예레반특별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아메리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브라질 (상파울루주)
오세아니아		호주 (시드니)	호주 (빅토리아주)
아프리카		마다카스카르 (안타나나리보)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

국제개발협력(ODA) 체계 구축

국내 지자체는 SDGs의 실현과 개발도상국의 인도적 위기 대응에 참여하는 동시에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내 대규모 사업 증가 등 새로운 잠재적 수요 및 개발 잠재력 확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지자체 내의 민간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국제개발협력 규모('19년)는 약 3조 2,003억원으로 1,40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시아(38.8%), 아프리카(21.6%)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음. 분야는 교통(15.1%), 보건(13.0%), 환경(10.6%), 교육(10.2%) 순이며, 형태의 경우 프로젝트(68.6%), 봉사단 파견(6.3%), 연수사업(5.0%), 개발컨설팅(3.8%), 민관협력(2.9%) 순으로 나타났다(2019년 국제 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1-23).

국제개발협력은 2018년 기준 11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총 164.8억원 지원이 되고 있다. 경북이 65.8억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37.4억, 인천 26.9억, 서울시 18.9억, 대구 6.8억, 강원 4.1억, 부산 1.7억, 1억미만이 경남과 광주로 나타났다(정상훈, 2019). 2018년 지자체의 ODA사업 예산분석 결과 사업유형의 경우 프로젝트(49.1%), 연수(21.2%), 장학지원(4.5%), 봉사단(2.5%), 순수다자(17.7%)로 나타났다(정상훈, 2019). 따라서 전라북도의 경우도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 추진 분야는 우선적으로 농업기술 및 축산기술 등을 추진을 검토한다.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인 농업기술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는 농업기술을 근간으로 한 농생명도시 및 식품산업 도시로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협력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농업기술의 경우 쌀분야, 농기계, 농업인 프라등을 고려할 수 있음.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사업분야를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전라북도 국제개발협력 분야 검토안>

사업분야	세부분야	
농업기술	쌀	벼육종기술, 재배기술, 벼 관리기술, 가공기술 등
	농기계	농기계보급, 농기계교육훈련, 농기계이용 및 R&D
	농업 인프라구축	농업용수개발, 농지개발, 경지정리, 대단위 및 마을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농촌정주여건 개선사업
축산기술	품종개량, 축산관리기술, 가공기술, 축산활용기술, 가축방역기술	

전라북도 공공외교 사업 지속 추진

국내 지자체의 공공외교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정책방향에 맞게 설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거주 외국 인과의 교류강화를 위해 서울평화국제포럼 개최,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외국인 주민 서울타운 미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 공공외교사업은 국제탁구대회 개최 및 자매 우호도시의 교류 확대, 인천의 경우 한류관광콘서트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광주시는 세계인권도시포럼, 울산시는 무용단 해외공연, 경기도는 세계도자기비엔날레 개최, 충북은 유네스코 기록유산 직지 해외특별 전시회,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전남은 한중일 바둑대회, 남도문예르네상스 등을 추진. 경북은 K-Pop 불꽃 페스티벌, 제주도는 국제걷기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락농정 프로그램을 연계한 해외 농업정책 및 기술 공유사업을 추진하거나, 해외문화원을 대상으로 전북 한스타일 학당을 운영할 수도 있다.

4. 결론

전라북도가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화 여건 성숙에 따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라북도 조례는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전라북도 해외 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 위촉·운영,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전라북도가 국제교류협력 추진의 필요한 사항 등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교류협력이나 정책이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선정 및 체결시 검토요건이나 고려 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유사성, 상호보완성, 우호증진 가능성, 실익 기대성, 교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화 기본계획 수립, 국제개발협력, 국제기구 유치 등을 포함하는 내용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국제교류 담당자 혹은 국제정책 의사결정자 등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국제화 인식 정도에 따라 국제화 수준이나 국제화 정도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김형수, 2017: 46). 따라서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화는 해외도시 및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 등을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정보수집 및 해외도시와의 유사성, 상호협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김형수, 2017: 48)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공무원의 전문직화 또는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 등을 고려해야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을 통해 평면적인 행정 교류 및 인적교류, 문화예술체육 교류 방식 등에서 벗어나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해당 해외도시 지역과의 국제교류가 실리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의 가입 및 창설, 유치 등을 통해 해외도시의 관계자들과 공동의제를 설정하고 상호협력방식을 통해 대안을 찾아감으로써 전라북도의 글로벌 위상 및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가의 원조 형태로 추진되어 왔지만 지금은 개발도상국가의 시장 잠재력을 판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례를 공유, 수출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경향이 높아 가고 있는 만큼 적극적 추진이 요구된다.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하여 국제화 기반이 약하지만 국제화 역량 강화 및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공외교사업의 긍정적인 평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국제화는 결국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속의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기 때문에 국제화 관련 전략 및 정책과제의 다양화를 통해 실리적인 국제화를 추진하여야 하고 이러한 노력은 행정뿐만 아니라 민관학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김형수(2017),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와 도시」, 서울연구원.
- 김미연(201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확산과 동형화, 「한국거버넌스학회」, 17(3): 61~83.
- 신중호외(2010), 「경기도 국제교류 기본계획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홍중필·여선하(2012), 공공기관의 해외 문화예술사업 특성에 따른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6(6): 334~365.
- 정상훈(2019), 「우리나라 ODA와 지자체 참여방안 및 사례」, 광주광역시 국제교류활성화 워크숍 자료집.

